



한국컨테이너풀(주)

# 컨테이너 규격 표준화·단일화로 공동사용

## 물류비 절감, 환경에 기여

기업내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더욱 업계 가슴을 조여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국가도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까지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보관, 운송, 하역, 적재시의 방대한 물류비의 손실에 대한 대책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듯 하다.

업계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96년 11월 설립된 한국컨테이너풀 주식회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컨테이너를 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파렛트풀, 금융기관, 컨테이너제조업체를 주주로 하여 자본금 20억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 컨테이너풀은 한국파렛트풀의 대표인 서병륜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서 사장은 이미 한국파렛트풀을 설립하여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 왔는데 대우중공업 재직시 절부터 물류에 관심을 가지고 파렛트풀 제도의 도입 및 물류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또한 그후 물류관리연구원 설립하고 꾸준한 활동을 하면서 한국파렛트풀을 설립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포장물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장본인이다.

한국컨테이너풀은 박스컨테이너를 생산·판매하는 것 이 아니라 각종 업계에서 보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박스컨테이너를 표준화·단일화시켜 동종업계 및 이종업계가 박스컨테이너를 공동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박스컨테이너는 제품용도상 관리부문에서 막대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박스컨테이너의 난립으로 인한 포장물류의 비표준화, 비규



▲ 한국컨테이너풀 본사 및 지방직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격화로 업체 상호간 거래시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박스 컨테이너 사용실정을 보면 1회용 포장용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용하고 난후의 포장용기, 즉 포장폐기물의 처리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도 물류비 상승 및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포장용기를 회수하여 반복 사용하려는 시도가 일부 기업에서 추진되었으나 각사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박스컨테이너들을 표준화하여 공동으로 반복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국컨테이너풀의 설립 배경이다.

마포에 자리잡은 마케팅본부는 농·수·축산, 유통, 의류를 담당하는 1팀과 자동차·전기전자, 기계를 담당하는 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충청, 대구, 호남, 부산지역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다.

마케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종현 이사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식품포장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재원으로 여러 포장업체의 경력을 바탕으로 컨테이너풀과 인연을 맺게 됐다.

“컨테이너풀 시스템은 컨테이너의 규격, 치수 등을 표준화하여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함

으로써 컨테이너를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여 물류의 합리화 및 물류비 절감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컨테이너의 교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종업계, 이 종업계 간에 통용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규격이 표준화 및 단일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만이 컨테이너의 완전한 상호교환이 가능합니다”라고 이 이사는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아직 컨테이너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홍보가 급선무인데, 영업의 범위가 다양하여 앞으로의 시장성은 긍정적이라고 한다.

특히 One By One방식, 수송위주로 영업을 펼칠 계획인데 먼저 한국파렛트풀의 거래처를 중심으로 컨테이너풀 시스템을 홍보하고, 본격적인 렌탈이 사용될 때까지 렌탈 시향가능업체 확보로 CPS의 기반을 구축하여 기존 카톤박스 및 단프라에이스를 컨테이너로 대체, 신규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농수축산의 영업범위가 비교적 넓은 데 최근 지금까지 나무로 사용되어 오던 어상자를 플라스틱 컨테이너로 개발하여 보완중에 있으며 어상자의 기능특성상 물이 흘러내림등의 특징을 감안하여 설계된 형태가 선보이게 될

(표 1) KCP 5개년 사업 계획

실적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매수(만대)	75	150	300	500	750
금액(억원)	20	50	100	150	200



한국컨테이너풀(주)

(표 2) 자사보유·1회용 박스컨테이너 운영시와 컨테이너 풀 이용시의 비교

구 분	자사 보유·1회용 박스컨테이너 운영시	컨테이너 풀 이용시
보유량	자사보유 박스컨테이너로 수송시에는 구내사용, 수송, 반송 등으로 구분되어 실제 사용보다 최소 3배이상의 컨테이너 필요	업종·업계를 넘어서 최소한의 적은 박스컨테이너로 컨테이너화 수송이 가능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스컨테이너 구입시 많은 자금 소요</li> <li>• 다수거래선인 경우 회수단위가 소규모화 → 높은 회수비용, 회수기간의 장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풀(Pool) 이용료만 소요</li> <li>•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적시공급(Just In Time), 회수비 절감</li> </ul>
가동률	경기·계절적 변동에 따른 잉여박스컨테이너의 발생 → 가동률 저하	경기·계절적 변동에 따라 최소한의 박스컨테이너로 수요조정 용이
공동화	자사내에서만 사용 가능 → 박스컨테이너 관리비·보관비·보수비 등 부대비용 발생	동종업계·이종업계간의 공동사용 → POOL이용료 절감
환경보호	1회 사용으로 포장폐기물 대량 발생	반복사용으로 포장폐기물 대폭 감소

것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기존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꾀력했다.

국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컨테이너풀 시스템은 앞으로 조직 및 시스템을 보강토록 하여 박스컨테이너의 표준화·규격화·통일화를 이루어 동종업계 또는 기타 전업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풀 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운용 네트워크를 구축, 패렛트 풀 시스템과 더불어 물류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재 포장용기에 대한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반복적인 재사용에 의한 포장용기 폐기물 억제로 환경문제 해결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한국컨테이너풀 창립총회

공산품에 비해 여러 물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물류관련 제반정책을 계획 추진중에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 이사는 특히 농산물업계의 박스컨테이너 포장화사업과 풀 시스템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이사는 “현재의 원시적인 유통구조로는 국제경쟁력이 약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포장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박스 사용시 재활용 가능으로 환경정화 운동 및 재생 산업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농산물 유통

거래 질서화립으로 소비자 신뢰 및 거래의 신속,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라고 농산물 포장에 있어 플라스틱박스 사용과 풀 시스템의 적용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포장출하시 요건 및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포장재로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골판지상자와 이를 개선하고 컨테이너 풀 시스템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 그리고 직접 산물출하를 상호 비교한 장단점 및 이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유럽 선진국에서도 5년전부터 풀 시스템을 도입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한 예로 74년 유럽에서 창립된 Cepe사는 호주에 파렛트 풀제도를 도입한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유럽에서 화물용기, 즉 3천만개의 파렛트, 해상용 컨테이너, 플라스틱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수송장비의 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공급하는 등의 서비스를 유럽 전역에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최선의 제안이라고 할수 있는 컨테이너 풀 시스템의 국내 도입역사는 아직 짧지만 빠른 시일내에 기업에 확산되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얼마나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는 이 제도에 대한 빨빠른 컨테이너풀 측의 움직임과 소비자들의 인식일 것이다.■



▲ 한국컨테이너풀은 업체에 컨테이너를 대여, 공급하고 있다.

이선하 기자